

연세대 2016학년도 기출 사회 1번

📌 **제시문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가)

세익스피어가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글을 그렇게 힘 있게 만든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시에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즉 우리가 흔히 그렇게 되어버리곤 하는 거짓된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정직함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응당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며,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진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세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무엇보다 네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그리하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수 있으리니.

(나)

우리는 내면적 자아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간의 정신이 사적인 영역에 갇힐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거나 그 느낌을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내면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느낌, 지각, 행동의 차이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만든 즉각적인 인상들을 점점 더 많이 차이가 나도록 하고, 이러한 차이들을 바로 사회적 존재의 기초로서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인상과 외양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거울삼으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즉각적인 인상들을 바로 우리의 인간됨으로 여긴다.

인간됨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된 것은 그 사람의 내적 본성과 부합된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양 그 자체이다. 게다가 사람의 외양이 변화하면 그 사람 자체도 변한다.

외양은 내면적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인간됨은 외양에 내재해 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베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알려주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옷차림이나 행동과 같이 세세한 것들로 이루어진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외양은 내면적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자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외양은 오히려 사적인 느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이다. 자아는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난 외양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다.

(다)

양처보(陽處父)*가 위(衛)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음(嬴)을 지나다가 영씨(氏)의 집에 묵게 되었다. 영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내 오래도록 군자다운 이를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려!”

그리고 양처보가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섰다.

영씨는 양처보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온산(溫山)까지 가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아내가 물었다.

“찾던 사람을 찾았다 하시더니, 그를 따라가지 않으시다니. 집이 그리도 그리우셨나요?”

그러자 영씨가 대답했다.

“내가 그의 걸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고자 하였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싫어하게 되었소. 걸모습이란 마음이 바깥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말이라는 건 그 걸모습의 기틀이요.

마음이 그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라면, 말은 자신의 무늬라고 할 수 있소. 말의 무늬로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마음과 말과 걸모습이 잘 부합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들이 괴리되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소.

양처보의 걸모습은 아주 번듯한데, 그의 말은 들떠 있으니 이는 진정한 그가 아닌 것이요. 내면이 부족한데도 겉으로는 강한 척 한다면, 이는 그 마음을 거스르고, 결국 그 마음도 바뀌고 말게 되요. 또 내면과 걸모습이 같더라도, 말이 그것을 거스른다면 그 믿음에 손상을 주는 것이요. 무릇 말로써 그 믿음을 밝히는 것이니, 말을 중시하기를 기틀 잡고 있듯이 해야 하며, 오래 생각해보고 입 밖에 내야 하는 것이니 어찌 경시할 수 있겠소! 이제 양처보의 마음이 어떤지 훤히 알겠소. 걸모습을 꾸며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고집스런 성격에다 재주만을 중시하며, 근본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욕보이는 그런 자는 못 사람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을 자요. 그를 따라 다니면 이로운 것 없이, 그로 인해 화를 당할까 두려워 그를 떠나온 것이요.”

1년 뒤 나라 안에 난이 일어났는데, 양처보는 결국 그 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양처보(陽處父)는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관리이며, ‘父’는 이름에서 ‘보’로 읽는다.

최은식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 름	
대학교	학년도	기술 / 모임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독해] 진정성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리

- (가) 진정성 있는 사람 ⇒ 삶의 방식으로 정직을 택하는 사람 ⇒ 자존감 형성하고, 타인에게 진실됨
- (나) 사람들마다의 주관 차이에 주목 ⇒ 내면적 자아 집착에서 탈피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규정, 내적 본성 ⇒ 외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됨
- (다) 균자 (진정성 있는 사람) ⇒ 마음과 말과 겉모습이 부합하는 사람, 말로써 드러나는 인성에 따라 평판이 결정됨

[논리평면] 비교

공통점	진정성 있는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침
쟁점	진정성 있는 사람의 조건	진정성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	정직을 택하는 사람	타인에게 진실하게 대함
(나)	무조건 - 내적 본성이 외양으로 표현됨	서로의 시선을 통해 상호작용
(다)	마음과 말과 겉모습의 조화	평판이 결정됨

[예시답안] 990자

문단	기능	해당 내용
1	공통점	제시문들은 모두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시문들이 인정하듯 진정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쟁점A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나에 대한 조건 차이가 있고,
	쟁점B	그에 따라 진정성이 타인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2	(가)A핵	먼저 제시문 (가)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정직을 택하는 사람이다.
	(가)A상	삶의 방식으로서 스스로에게 정직함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시를 통해 스스로에게 진실하라고 강조했다. 진실한 사람이라야 진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B핵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한 사람이 된다.
	(가)B상	정직한 자신이 훌륭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3	(나)A핵	다음으로 제시문 (다)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조화로운 사람이다.
	(나)A상	아무리 겉모습이 군자다워도 말로써 전해지는 내면이 바르지 못하다면 진정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의 영씨가 처음에는 양처보의 겉모습에 감탄해 그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합하지 않는 양처보의 면모를 보고 군자답지 못하다 평가했다.
	(나)B핵	이렇듯 (다)는 사람의 진정성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나)B상	영씨가 양처보에 대한 평가를 바꿨듯, 양처보는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해 난이 일어났을 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4	(다)A핵	이들과 달리 제시문 (나)는 진정성이 특별한 조건이 없이 사람의 외양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 말한다.
	(다)A상	내적 본성이 겉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모습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B핵	그리고 (나)는 이렇게 외양으로 표현되는 진정성의 모습이 타인에 전달됨에 따라 타인의 자이를 규정한다고 말한다.
	(다)B상	사람들마다 주관의 차이가 있고, 각자의 주관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규정한다고 한다. 즉, 외양으로 표현된 내면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것이다.

(가)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글을 그렇게 힘 있게 만든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시에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즉 우리가 흔히 그렇게 되어버리곤 하는 거짓된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정직함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응당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 **대단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무언기를 느끼게 되며,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진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무엇보다 네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그러하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수 있으리니**.

진정성
 - 명위권까지
 - 행하지 않음 (비행)
 - 정직성
 항상
 ↓
 자립감 ↑
 타인에게 정직 (신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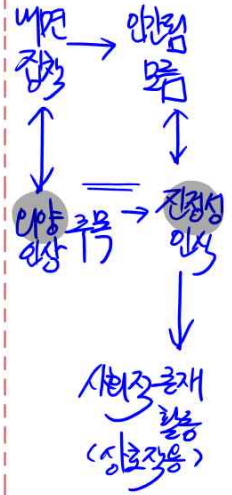
(나)

우리는 내면적 자아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간의 정신이 사적인 영역에 갇힐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거나 그 느낌을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내면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느낌, 지각, 행동의 차이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만든 즉각적인 인상들을 점점 더 많이 차이가 나도록 하고, 이러한 차이들을 바로 사회적 존재의 기초로서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인상과 외양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거울삼으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즉각적인 인상들을 바로 우리의 인간됨으로 여긴다.

인간됨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된 것은 그 사람의 내적 본성과 부합된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양 그 자체이다. 게다가 사람의 외양이 변화하면 그 사람 자체도 변한다.

외양은 내면적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인간됨은 외양에 내재해 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베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알려주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옷차림이나 행동과 같이 세세한 것들로 이루어진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외양은 내면적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자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외양은 오히려 사적인 느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이다. 자아는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난 외양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다.



(다)

양처보(陽處父)*가 위(衛)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읍(潁)을 지나다가 영씨(氏)의 집에 묵게 되었다. 영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내 오래도록 군자다운 이를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려!”

그리고 양처보가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섰다.

영씨는 양처보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온산(溫山)까지 가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아내가 물었다.

“찾던 사람을 찾았다 하시더니, 그를 따라가지 않으시다니. 집이 그리도 그리우셨나요?”

그러자 영씨가 대답했다.

“내가 그의 걸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고자 하였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싫어하게 되었소. 걸모습이란 마음이 바깥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말이라는 건 그 걸모습의 기틀이오.

마음이 그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라면, 말은 자신의 무늬라고 할 수 있소. 말의 무늬로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마음과 말과 걸모습이 잘 부합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들이 괴리되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소.

양처보의 걸모습은 아주 변듯한데, 그의 말은 들떠 있어 이는 진정한 그가 아닌 것이오. 내면이 부족한데도 겉으로는 강한 척 한다면, 이는 그 마음을 거스르고, 결국 그 마음도 바뀌고 말게 되오. 또 내면과 걸모습이 같더라도, 말이 그것을 거스른다면 그 믿음에 손상을 주는 것이오. 무릇 말로써 그 믿음을 밝히는 것이니, 말을 중시하기를 기틀 잡고 있듯이 해야 하며, 오래 생각해보고 입 밖에 내야 하는 것이니 어찌 경시할 수 있겠소! 이제 양처보의 마음이 어떤지 훤히 알겠소. 걸모습을 꾸며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고집스런 성격에다 재주만을 중시하며, 근본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욱보이는 그런 자는 못 사람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을 자요. 그를 따라 다니면 이로운 것 없이, 그로 인해 화를 당할까 두려워 그를 떠난 것이오.”

1년 뒤 나라 안에 난이 일어났는데, 양처보는 결국 그 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양처보(陽處父)는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관리이며, ‘父’는 이름에서 ‘보’로 읽는다.



[대학 출제의도]

- . 이번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수시논술은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다면사고형 논술시험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고등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 .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최대한 반영해 <문학>, <철학>,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내면과 겉모습', '말과 행동' 등을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추상적 차원과 '내면적 자기의 진정성과 외면적 타인의 시선에 따른 인간 행동'이라는 현실적 주제의 차원에서 통합적인 문제로 구성하였다.
- . 제시문은 EBS 수능특강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 및 내용에 준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들에 익숙한 수험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 . '진정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문학, 역사, 사회학)의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독해력과 독창적인 논리력,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2016년도 EBS 수능특강 실전편에서 발췌하고, 수험생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시 구절을 보충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진정성있는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한 외적 상황에 좌우되는 진실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서의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존재는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훌륭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는데, 그 지극한 만족감은 결국 그를 타인에게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든다.

제시문 (나)는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의 『공적 인간의 몰락(The Fall of Public Man)』 서 발췌, 편집한 내용을 출제 의도에 맞춰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제시문 (가)와 달리 한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을 그 내면에서 찾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인상이나 외양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이라고 주장한다. 이 제시문에 따르면 한 사람은 겉모습 바로 그 자체이며, 겉모습은 내면적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겉모습의 차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 그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시선은 나의 인간됨을 이해하고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중국의 고전 문헌인 『국어(國語)』 「진어(晉語)」에 나오는 일화를 발췌한 것이다. 이 일화는 당시 명성이 높았던 양처보와, 그를 흠모하여 따라나섰다가 그의 말을 듣고 양처보의 인간성에 실망하여 그를 떠난 영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씨가 양처보를 떠난 연유를 자기 아내에게 들려주는 부분에서 인간의 진정성에 대한 관점이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겉모습과 마음 뿐만 아니라 '말'이라는 매개가 추가된다. 그에 따르면 마음은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고, 말은 그 자신의 무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말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은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이자 겉모습의 기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말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채점기준]

- 상: 세 가지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상이한 관점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서술할 경우 <제시문들을 비교할 때 꼭 (가)와 (나), (나)와 (다), 혹은 (가)와 (다)로 두 개씩 짝을 지워 병렬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는 없다.>
- 중: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에 대한 이해라든지,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들의 차이점 분석에 부분적으로만 성공할 경우
- 하: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시문들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작 품		첨 삭			
<p>제시문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들 모두에서 진정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이에 따른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낸다.</p> <p>먼저 제시문 (가)에서 진정성 있는 사람의 특성은 정직이다. 정직한 사람은 드물지만, 이는 인간의 삶에서 선택 가능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정직함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훌륭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정직함을 선택하며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삶을 지속하고 싶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솔직해지는 것이다.</p> <p>제시문 (나)는 진정성에서 내면은 곧 외양이라고 주장한다. ①내면적 집착으로 인한 내면은 설명할 수 없다. ②내면적 집착이 없어진다면 다양한 외면에 존재하는 차이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외면에서의 차이는 내면에서 바로 표출된 것이기에 사람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양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기여하고, 사람들은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한다. 이는 옷차림이나 행동과 같은 섬세한 것들에서 드러난다.</p> <p>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에서 영 씨는 진정성이 내면, 말, 걸모습 세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이를 행동으로 옮기며 진정한 사람, 즉 군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에서 영 씨는 양처보의 군자다운 걸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려 하였지만, 그의 들떠 있는 말과 그의 고집스럽고 재주만을 중요시하는 내면에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③그러면서 그는 돌아온 이유를 묻는 아내에게 무엇보다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내면과 외양이 모두 갖추어져 있더라도, 말이 앞선 두 요소와 조화되지 못한다면, 타인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그렇기에 양처보는 근본을 저버리고 타인을 속이기에 인심을 잃고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양처보는 나라에서 빈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원망을 사 죽임을 당한다. 앞서 영 씨가 양처보를 따른 것처럼, 내면과 말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걸모습까지 갖추어진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추종자가 생기는 것이고, 걸모습이 그저 허물이고 내면과 말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양처보의 사례처럼 죽음에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다.</p>	<p>논 제</p> <p>☆ 비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표준전개의 요소는 관철적 적용된 편입이다. 다만, 본론에서 쟁점에 따른 핵심이 더 명쾌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독 해</p> <p>① “내면에 집착하면 오히려 내면에 대해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쉽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보자. 쉽게 읽히는 글이 더 우수한 글이야. 문어체 안에서 ‘말하듯이’ 표현해 보도록 하자.</p> <p>그리고 현재 나와야 하는 쟁점은 ‘진정성 있는 사람의 조건’이지? 그럼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내용이 나와야 해. ‘외면이 곧 내면이기에 진정성을 위한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p>				
	<p>구 성</p> <p>⑤ 세부 사항이 너무 많이 나온 대목이야. 개념적으로 압축해서 더 간명하게 제시하자. 같은 내용을 훨씬 더 짧게 쓸 수 있을 거야.</p>				
	<p>표 현</p> <p>⑦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너무 비슷한 표현인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 비슷하게 쓰면 안 됩니다.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세요.</p>				
평 가	논제 [40] 34	독해 [30] 24	구성 [20] 15	표현 [10] 7	총합 [100] 80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작 품				첨 삭	
<p>제시문들은 모두 진정성 있는 사람이 대해 논하고 있고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들은 진정성이 타인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성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과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p> <p>먼저 ①제시문 (나)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겉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②(나)는 내면적 자아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진정성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보다 진정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외양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또한 (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내적 본성과 부합한다고 보며 이에 따른 것들이 서로의 시선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사람들의 상호작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p> <p>반면에 제시문 (가)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정직함을 선택하는 자이다. 정직함은 내면적 자아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나)가 내면적 자아에 몰두하는 관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는 긍정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④또한 (가)가 진정성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내적인 면에서 해결하는 반면에 (나)는 외적인 면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에서 세익스피어는 정직함을 통하여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직함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이 남도 존중하게 되며 사람들을 진정성있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p> <p>다음으로 제시문 (다)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마음과 겉모습 그리고 말이 조화로운 사람이다. (다)에서는 말은 자신의 무늬라고 표현하고 이는 또 겉모습에 기틀이라고 한다. 또한 마음과 말 겉모습이 잘 부합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본다. ⑤하지만 (다)의 인물 양치보는 겉모습은 군자같지만 속은 바르지 못한 표리부동같은 상태이며 그의 말은 거짓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양씨의 믿음에 손상을 주게 된다. 이렇듯 사람의 진정성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결정짓는 주요한 조건이 된다.</p>				논 제	☆ 전반적으로 비교의 논의로서는 칭찬하고 싶은 글이야.
				독 해	① (나)에서는 진정성이 조건적이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해당'된다는 표현을 추가해주면 좋겠다.
				구 성	<p>② 이 문장은 바로 앞 문장인 '핵심'에 대한 '상술'이 아닌데? 상술은 핵심을 구체화시켜 주는 거야. 진정성이란 게 내면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일 뿐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줘야 해요. 아무리 제시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설정한 핵과 초점이 안 맞으면 체계성 있는 논의 전개라고 할 수 없어요. 이는 모든 핵상 관계에 공통 적용되는 대원칙!</p> <p>④ 약간 실험적인 전개를 보여줬네. (나)의 쟁점 B는 이미 2문단에서 논의한 바 있지? 그러면 그 논의는 거기서 끝내야 해. 또 나오면 중복이고, 지저분해요.</p> <p>⑤ 오... 부분적 미갈식 전개를 보여줬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 적용됐네. 잘 했어. 다만 이렇게 미갈식 설명이 나올 때는 특히나 어떤 쟁점에 대한 분석인지 흐릿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써 줘야 해~! :)</p>
표 현	③ 내용은 괜찮아. 다만, 핵과 상을 나눠서 두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은 습관이야. 한 문장으로만 하다보면 '두괄식'으로 전개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고, 만연체가 되면서 문장이 꼬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 작은 단위라도 핵과 상으로 쪼개서 쓰기를 추천!				
평 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6	26	15	8	85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작 품				첨 삭	
<p>각 제시문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간의 진정성이 개인과 사회 속에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성을 정의하는 방식과 진정성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p> <p>우선 (나)는 인간의 진정성을 사회 외적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나)에서 필자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즉각적인 인상이 사회적 존재의 기초로서 고려되며, 이러한 외양적인 것들이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진정성이란 사회 외적인 단초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외적 요인들이 진정성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p> <p>반면 (가)와 (다)는 인간의 진정성을 인간 내적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가)에서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진실한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하게 (다)도 예상과 다른 양치보의 모습에 실망한 영씨가 사람의 겉모습이란 마음이 안에서 바깥으로 피어나는 것이며, 말이란 그 마음의 무늬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진정성이란 자신의 내면적 성숙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내적 성숙을 바탕으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p> <p>다음으로 진정성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에서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을 통한 인식에 더 주목한다. 이는 (가)에서 삶의 방식으로 정직을 택하면서 진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나)와 (다)에서의 방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식에 더 주목한다. ㉢이는 (나)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에서도 영씨와 양치보가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영씨가 진정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논 제	㉠ 쟁점 2개가 내용적으로 너무 많이 비슷해요. 두 개 모두 진정성과 관련된 인지 형식에 대한 논의거든... 하나를 형식적인 측면에 잡았으면,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잡는 게 좋았을 거야. 새로운 걸로 쟁점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 그 도전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 시험장 가서는 '명쾌함'을 기준으로 잡아내면 돼.
				독 해	㉡ 인간의 진정성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핵심이 나올 자리인데, 핵심이 명쾌하게 인식되진 않아. 쟁점 두 개가 너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분해서 쓰려고 해도 내용이 비슷해서 명료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구 성	㉢ 조금 더 부연해 주는 게 좋아. 어떤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상술에선 그런 걸 써줘야 해. (그래서 쟁점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야. 충분히 설명을 못 해주니까.)
				표 현	☆ 표현력 많이 좋아졌네... :) 간단명료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습관 기르면 돼. 지금보다 더 좋아질 필요도 없고, 이 정도로 매번 쓰면 돼.
평 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5	24	15	8	82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작 품				첨 삭	
<p>제시문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①제시문들은 진정성이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들 사이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②선택적이거나 필연적인가에 대한 관점이 상이하며 ③영향력이 개인에서 사회,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방향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p> <p>먼저 ④제시문(가)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함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세익스피어는 시를 통해서 본인에게도 정직하고 타인에게도 정직하기를 강조한다. 정직한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훌륭하게 평가한다. 그리고 높은 자존감과 만족감을 주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든다. ⑤또한 진정성 있는 사람은 선택적 사항이며 선택한 사람도 드물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에게 영향을 준다.</p> <p>⑥다음으로 제시문(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겉모습과 마음 그리고 언행이 부합하는 사람이다. (다)는 영씨는 양처보의 외양을 보고 그를 추종하였으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이 부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씨는 양처보를 외면하게 된다. 정직한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추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합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원망과 외면을 받게 된다. ⑦진정성 있는 사람은 선택적이고 드물다 또한 개인이 사회로 영향을 준다.</p> <p>⑧마지막으로 제시문(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내적 본성이 외양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외양은 내적 본성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며, 자아와 무관하지 않다. 인간됨에 따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인의 시선이 타인을 의식을 고려하여 만들어진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자아정체성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⑨제시문(가), (다)와 달리 제시문(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필연적이며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게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p>				논 제	⑥ '선택이나 필연이나'라는 쟁점에 대한 핵심이 나오는 부분이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선택 혹은 필연이라는 단어를 써서 핵심을 제시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명쾌함이 높아지니까. 채점자가 '스윽~' 보고 지나가도 명쾌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채점할 때 억울한 일이 안 생겨요.
					독 해
				구 성	
					표 현
평 가	논제 [40] 34	독해 [30] 24	구성 [20] 14	표현 [10] 7	총합 [100] 79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작 품				첨 삭	
<p>제시문들은 진정성 있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제시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에는 차이가 드러난다. 또한 진정성의 내재성 여부와 진정성 있는 삶이 끼치는 영향의 방향에도 상이한 관점을 보인다.</p> <p>먼저 제시문 (가)는 정직한 인간이 진정성 있는 인간이라고 정의한다. 정직함을 중요시하라는 셰익스피어의 시에서 보듯, 인간의 정직성이 바람직한 삶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 그가 강조하듯 정직한 삶, 즉 진정성 있는 삶은 선택의 문제이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삶이라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감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면 자존감과 만족감이 형성된다. 그 결과로 개인은 타인에게 진실할 수 있으며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 나에게서 타인으로, 즉 개인이 사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❶사회 명목론이 드러난다.</p> <p>다음으로 제시문 (나)는 다양한 외양이 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개인과 다른 타인의 외양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자아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즉, 외양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의 구체적인 내면까지 헤아릴 수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진정성을 이해하는데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됨은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재된 것이다. 내재되어 있는 특징을 우리는 타인과 다른 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사회에 기초한 외양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습에서 사회 실재론의 모습을 볼 수 있다.</p> <p>마지막으로 제시문 (다)는 언행일치야말로 인간의 진정성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양처보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길을 함께 떠난 영 씨가 양처보의 겉모습과 그의 언행의 괴리로 이내 실망한 채 발을 돌리는 모습에 잘 드러난다. 겉모습, 마음, 말의 일치하는 내재된 것이 아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려면 개인의 노력과 숙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행일치를 이룬 자는 사회의 선망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품성이 타인의 존경과 추종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개인이 사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회 명목론을 말할 수 있다.</p>				논 제	☆ 읽는 내내 “와...”만 반복함. 무조건 수석하는 글입니다! :)
				독 해	❶ 다 된 밥에 명목론 뿌리기 T_T 감동스럽게 읽고 있다가, 잉?! 명목론은 사회라는 초월적 존재가 실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는 단지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는 관념이야. 개인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건 조금 어색해요.
				구 성	☆ 명쾌하면서도 부드럽게 연결했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구성력에 가까움... 창난 아님... :)
				표 현	☆ 표현력도 매우 훌륭함! 전체적으로 감동스러운 글... :)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9	26	19	9	93